

면세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한뜻

- 환경부·한국면세점협회·12개 면세점사, 일회용품·유통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한국면세점협회, 12개 면세점*과 ‘일회용품·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제주관광공사, 경북공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디엠면세점, 부산면세점, 시티면세점, 울산면세점

이번 협약은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재질의 쇼핑백과 완충재(일명 뽕뽕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 뜻을 모아 마련했다.

그간 면세점에서는 면세품을 비닐완충재로 과도하게 포장하고, 일회용 비닐쇼핑백에 담아 고객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공항 내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협약 이후 면세점 업계는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여 나간다.

기본적으로는 비닐쇼핑백 대신 종이쇼핑백을 사용하고, 고객이 면세품을 주문할 때 쇼핑백 제공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쇼핑백 사용을 최소화한다. 다만 면세점 이용고객 특성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류, 김치 등 무거운 제품에만 비닐쇼핑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에 사용된 비닐쇼핑백은 약 1.2만톤(12개사 기준)이다.

아울러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닐 완충재를 2027년까지 50% 이상 감축*한다.

* 비닐 완충재 사용량(12개사 기준) : '19년 1,133톤 → '27년 567톤(목표치, 구매객 수를 '19년과 동일한 3,500만 명으로 가정)

약한 충격에도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만 비닐완충재가 사용되며,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는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이재질 완충재가 쓰인다.

이 밖에 면세품의 운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운반도구를 개선해 비닐완충재 사용을 줄인다.

그간 비닐쇼핑백에 담긴 면세품이 물류창고, 공항 인도장 등으로 운송될 때 상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완충재가 많이 쓰였다. 앞으로는 충격 완화 효과가 높은 물류 상자로 대체되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롯데·현대·신세계 등 일부 면세점에서 충격 완화 효과가 높은 물류 상자가 운송 작업에 쓰이고 있으며, 다른 면세점에서도 이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물류과정에서 대규모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낙하방지용 랩도 재활용되는 등 비닐류 포장 폐기물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협약식 당일에는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운동(캠페인)이 선보인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방문고객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위한 10가지 생활 습관을 안내하고, 실천 서약을 한 고객에게 다회용 가방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면세점의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여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자발적 협약식 행사 개요.
2. 면세품 포장 간소화 사례.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1회용품 대책 추진단	책임자	팀 장	임수영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황남경 (044-201-7414)

□ **추진 목적**

- 면세점의 일회용 봉투·쇼핑백, 완충재 과다 사용에 따른 폐기물 다량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업계와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3. 9. 15(금), 14시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서울 중구)
- (협약기관) 환경부, 한국면세점협회, 12개 면세점 사업자*
 - *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제주관광공사, 경북공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디엠면세점, 부산면세점, 시티면세점, 울산면세점
- (주요내용) 비닐쇼핑백 단계적 감량을 통한 사용 퇴출*, 완충재 사용 감량 등 과대포장 방지
 - * 다만, 장거리 여행을 감안하여 주류 등 무거운 물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 14:00	-	■ 행사장 도착 및 사전 환담	참석자
14:00 ~ 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 ~ 14:10	(5')	■ 인사 말씀	장관, 협회장
14:10 ~ 14:15	(5')	■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감량 추진현황	협회
14:15 ~ 14:30	(15')	■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14:30~14:40	(10')	■ 캠페인 현장 방문 - 면세품 포장 시연(간소화 전·후 비교) -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 개선 전 포장방식

- (1단계:물류창고) 비닐쇼핑백, 완충재(일명 ‘뽕뽕이’)를 이용하여 면세품 포장
- (2단계:운송과정) 천 재질의 행낭가방에 담아 보세구역으로 운송

1차 포장(비닐쇼핑백.완충재)	2차 포장(행낭가방)
	

□ 개선 후 포장방식

- (1단계:물류창고) 재사용이 가능한 타포린백으로 면세품 포장
- (2단계:운송과정) 알루미늄 프레임을 활용한 무빙렉, 견고한 상자 등을 활용하여 보세구역으로 운송

1차 포장(타포린백)	2차 포장(무빙렉 등)
	